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문제와 공존하는 인생>

3/17(주일) 설교 내용

욥기 1:21-22

1.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곤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혹, 목원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업의 실패, 관계에서의 어려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어려움이 다시 잘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죠.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2.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묵상)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목원들에게,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묵상한 일이 있다면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목자들도 함께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질문 그대로,
목원들에게 오늘 나눔 가운데서 가장 도전이 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목장 나눔 가운데,
비교적 소극적으로 참여한 목원이 있다면 이 3번 질문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1,2번 질문에서는 대답이 곤란할 수 있으나,
3번 질문은 비교적 부담없이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목장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